

연세대학교 2011 논술 (인문)

ID : HOT6

IMIN: 501551

<문제1>

(가)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불변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죽은 후에도 인간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죽은 이의 무덤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 실존의 특수한 의미가 파생된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다)는 죽음을 부정적이고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았으며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결국 자연으로 해체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다고 보았고 그로 인하여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나)에서는 죽은 마체사를 폭행하는 것과 과시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마체사의 죽음과 살아있는 고릴라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모종의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가)(나)(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으로 보아 각 생명체가 이루고 있는 사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또한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2>

(가)의 입장에서 (실험1)은 죽음이란 인간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 즉 인간을 떠올린 '을' 집단이 죽음과 연관된 단어를 더 많이 떠올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할 것이다.

(실험2)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